



해외 동향

□ 폴란드, 차세대 전투기로 F-35 운용 계획

- 폴란드, 현재 운용 중인 러시아제 Su-22전투기와 미그-29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 F-35 32대로 교체 계획
- 폴란드가 F-35 구매하게 되면 구소련권 국가 중 처음으로 F-35전투기 운용국
 - ※ F-35전투기 구매(예정)국가 : 미국, 한국, 호주, 덴마크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터기, 영국, 일본, 이스라엘 등
 - ※ F-35전투기 판매실적 : 총425대 (1대당 평균 가격 약1천100억 원)

총 계	2016년 이전	2017년	2018년	2019년 현재
425대	137	66	91	131

□ 터키, F-35 대신 러 스텔스기 ‘수호이57’ 도입?

- 터키는 지난달 12일부터 러시아로부터 S-400지대공 미사일*을 인수받았으며, 미국은 터키에 판매하기로 한 F-35전투기의 기밀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해 터키에 F-35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힘.
 - ※ S-400지대공 미사일 : F-35 등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, 러시아 모스크바 주코프스키에서 열린 MAKS-2019(국제 항공우주에어쇼)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 스텔스기 Su-57에 나란히 오르며 향후 구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.



Su-57전투기

- 제작사 : 수호이(러시아)
- 러시아가 美 랩터 F-22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
- 2002년 개발 시작, 시리아 등 일부에서 운용 중
- 대당 가격 : 5천만 달러(673억 원)

□ 美, 대만에 F-16 전투기 66대 판매 승인

- 미 국무부, 대만에 80억 달러(한화 약 9조6천 억 원) 규모 F-16 전투기 66대 판매 승인
- 중국, '하나의 중국' 원칙과 중미 3대연합 공보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라며 미국의 이번 결정을 강력 비난. 향후 양국 갈등 고조될 전망
- 대만은 66대의 F-16V를 사들여 전투기 연대를 8개로 늘릴 계획



국내 동향

□ F-35 스텔스 전투기 4대, 22일 청주 도착

- 오는 10월 1일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(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기지)에서 F-35A 전투기 축하비행 계획
 - ※ F-35A는 올해 3.29. 2대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8대 도입 됨.
- 공군은 올 해 F-35 10여 대를 전력화하고, 순차적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여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



F-35 전투기

- 제작사 : 록히드마틴(미국)
- 특징: 초음속 스텔스 수직이착륙 전투기
 - 이·착륙방식과 사용 분야에 따라 A,B,C형으로 나뉨
- 최대속력 : 마하1.8 • 최대무장탑재 : 8.2t
- 가 격 : 9천500만 달러(약 1천100억 원)

□ '드론택시' 개발 민관 협의체 구축

-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, 미래형 개인비행체(PAV)*개발 및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 발족식 개최
 - * PAV는 모터, 배터리 등 전기동력을 사용해 도심 상공에서 사람·화물을 나르는 3차원 이동 수단
- 산자부, 2023년까지 분산전기 등 핵심기술과 지상장비 개발·시험, 시속 200km 이상급 시제기 개발 등에 235억 원 지원 예정
- 보잉, 에어버스, 아우디, 도요타 등 세계 150여개 기업도 PAV 개발 추진 중
 - 2023년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미국 우버 에어택시 '우버 엘리베이트'가 시장에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



도내 동향

□ 경남도,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회 개최

-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, 13개 민·관 기관 관계자 참석
- 사천공항 적자노선 손실지원금 지원 확대, 항공상품 연계 인센티브 지원확대 및 통일화, 사천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등에 대한 실행방안을 토의
- 한편,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사천~김포 간 운항을 주 28회에서 14회로 감편 운항하겠다고 밝힘(1일 왕복2회 → 왕복1회)
- 진주시('19.3.)와 하동군('19.7.), '사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조례' 제정
- 경남도와 사천시, 재정지원금 연 1억 원 →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(2020년)
 - ※ 타지방공항 재정지원 현황 : 여수 2억 원, 제주 2억 원, 군산 5억8000만 원, 포항 10억 원, 양양 15억 원 등



관내 동향

□ KAI, 日 가와사키와 7500억원 규모 공급계약

-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(이하 KAI), 지난 8월 22일 일본 가와사키중공업과 7,494억 원 규모의 B787 FTE(Fixed Trailing Edge)* 연장계약 체결
 - * FTE(Fixed Trailing Edge) : 후방조종면 장착구조물(날개와 동체 연결부위)
- 계약 연장 기간은 2022.1.1.~ 2030.12.31.까지, 이전 계약은 2014. 2. 체결됨

□ 에어로마트사천 2019 성황리에 개최

- 9.5.~9.6.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(곤양면 소재)에서 개최
- 미국 보잉社 및 한국 방위사업청 등 국내외 71개 항공업체 및 기관 참가
- 상담실적 502건, 수출상담액 2.4억불(한화 2,400억 원) 규모 실적달성
- 국내외 항공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활성화 및 판로개척 기대

작성일	2019. 9. 16.(월)	보고일	2019. 9. 16.(월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 (055-831-3470)